

통일애국의 기치아래 민족의 대단결을 과시한 역사적인 민족적회합

장 응 식

역사적인 남북조선 정당, 사회단체대표자련석회의가 진행된 때로부터 70년이 되었다.

남조선에서 《단선단정》조작책동으로 민족분열이 고정화될 위험이 조성되었을 때 열린 남북련석회의는 북과 남의 각당, 각파, 각계각층의 애국력량을 하나로 묶어세우고 조국의 자주독립과 통일을 실현하기 위한 성스러운 위업에 불러일으켜 나라와 민족의 운명을 구원하는 민족적회합이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직접적인 발기와 지도밑에 1948년 4월 평양에서 열린 남북련석회의는 통일애국의 기치아래 민족의 대단결을 실현하여 나라와 민족의 운명을 구원하는 역사적인 민족적회합이었습니다.》(《김정일선집》 증보판 제19권 322페이지)

해방직후의 복잡다단한 정치정세속에서 극소수 민족반역자들을 내놓고는 남조선의 거의 모든 정당, 사회단체대표들과 완고한 반공민족주의자들까지 참가한 폭넓은 민족적대회합이 마련되고 이 회합에서 일치한 합의를 이룩하여 거족적인 애국투쟁을 벌리게 된것은 위대한 수령님의 자주적인 조국통일로선과 민족대단결사상의 빛나는 결실이였으며 통일애국력량이 이룩한 역사적인 첫 승리였다.

4월남북련석회의는 비록 사상과 리념이 다르고 정견과 신앙에서 차이가 있다 하더라도 공산주의자와 민족주의자를 비롯한 각이한 정치세력과 각계각층이 민족공동의 위업을 위한 투쟁에서 얼마든지 단결할수 있으며 북과 남이 화합하고 온 민족이 단결하면 조국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실현할수 있다는것을 뚜렷이 보여주었다.

4월남북련석회의는 우선 민족의 태양이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를 조국통일의 구성으로 높이 모시고 민족의 대단결을 과시한 민족적회합이었다.

민족의 운명문제해결에서 기본은 탁월한 수령을 민족의 수위에 높이 모시는것이다.

4월남북련석회의는 민족의 태양이신 위대한 수령님을 모시고 북과 남의 정당, 사회단체대표들이 해방후 처음으로 한자리에 모여 조국과 민족의 운명을 좌우하는 중대한 문제를 토의한 첫 정치협상회의였다.

조국해방의 역사적위업을 이룩하시고 민족재생의 길을 열어주신 항일의 전설적영웅 김일성장군님을 만나뵙고싶은것은 해방직후 남조선의 각계각층 인민들과 량심적인 정치인들의 한결같은 소망이었다.

민족의 태양이신 위대한 수령님을 끝없이 흠모하는 이들의 공통적인 지향과 념원은 정견과 신앙이 서로 다른 그들로 하여금 수령님께서 발기하신 남북련석회의의 소집을 적극 지지하게 하였고 민족의 중대사를 논의하는 한자리에 모이게 하였다.

당시 주체36(1947)년말에 이르러 분열주의자들의 범죄적인 분열책동에 의하여 우리

조국에는 통일이나 분열이나 하는 두 로선사이의 대립이 극도로 첨예화되었으며 자주독립국가건설의 앞길에는 엄중한 위기가 조성되었다.

조성된 사태의 엄중성을 간파하신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부닥친 민족적위기를 타개하기 위하여 주체37(1948)년 신년사에서 전체 인민이 《유엔림시조선위원단》을 반대하여 견결히 투쟁할것을 호소하시였다.

그리하여 북조선의 각 지역에서 군중집회와 시위가 련일 벌어지고 남조선에서도 일대 항쟁이 전개되었다. 남조선인민들의 항쟁은 《유엔림시조선위원단》이 남조선에 기여드는것을 계기로 급격히 고조되었다.

여러 나라들이 유엔은 남조선에서 단독선거를 시행할 권리가 없다고 강하게 반대하였으며 유엔소총회참가를 거부하고 국제협정과 유엔헌장에 위반되는 그 어떤 결의도 비법적인것으로 단호히 배격한다고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남조선에서만 단독선거를 실시할데 대한 《결의안》이 강압통과되었다.

리승만피뢰도당은 《남쪽만이라도 름시정부를 조직》하자는 《정읍성명》이란것을 발표하였으며 남조선에서만이라도 단독《정부》를 세워줄것을 애걸하는 추태를 부리였다.

남조선단독《정부》조작계획은 유엔을 리용하여 《합법화》된 후 실천단계에 옮겨졌다. 그리하여 우리 나라에는 국토량단이 고정화되고 민족분열이 영구화될 엄중한 위험이 조성되었다.

삼천리강토에 민족분열의 비운이 무겁게 드리운 이 엄혹한 시각에 온 겨레의 시선은 절세의 애국자이시며 민족의 구성이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 한결같이 쏠리였다.

통일위업의 엄숙한 과제를 한몸에 지니신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모든 외국군대를 철거시키고 어떠한 외세의 간섭도 없이 조선사람의 손으로 자주적립장에서 민주주의적원칙에 기초하여 평화적방법으로 나라를 통일하는것을 조국통일의 기본방침으로 명시하시고 당면하여 전민족애국력량이 통일전선을 형성하여 단합된 힘으로 《단선단정》조작음모를 저지파탄시킬데 대한 과업을 제시하시였다.

통일전선형성의 목적은 나라의 영구분렬방지와 민주주의적통일정부수립에 있으며 그 성격은 《단선단정》음모책동을 반대하고 통일정부수립을 지향하는 진정한 애국적민주력량의 반제민족통일전선이라는데 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통일전선을 형성하는데서 당파나 정견, 신앙의 차이, 과거여하를 불문하고 애국의 길에 나서는 사람들을 총집결하며 서로 자기의 주의주장과 신앙을 상대방에 강요하지 말고 모든것을 오직 민족공동의 리익에 복종시키며 통일전선을 철두철미 《단선단정》조작책동을 저지파탄시키기 위한 투쟁전선으로 되게 하도록 하시였다.

국토가 남북으로 갈라진 우리 나라의 현실적조건에서 북과 남의 광범한 애국적민주력량을 최대한으로 묶어세워 통일력량의 힘을 결정적으로 강화할수 있게 하는 가장 합리적이고 적극적인 방침을 전체 조선인민은 한결같이 지지하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남조선단독선거를 반대하는 인민들의 강력한 항의투쟁과 통일을 바라는 민족의 불타는 념원이 남조선의 각계각층 인사들에게 주고있는 거대한 영향력을 헤아리시고 통일전선을 형성하는 실천적조치로서 북과 남의 정당, 사회단체대표자련석회의를 소집할데 대한 획기적인 제안을 내놓으시였다.

온 겨레의 절대적인 지지와 찬동속에 그리고 그들의 크나큰 기대와 관심속에 주체

37(1948)년 4월 19일부터 23일에 걸쳐 평양에서 북과 남의 정당, 사회단체대표자련석회의가 열리게 되었다.

남북련석회의에는 자주통일을 지향하는 북과 남의 56개 정당, 사회단체(북 15개, 남 40개, 해외 1개) 1천여만의 성원을 대표하는 695명의 대표들이 참가하였다. 대표들의 계층별구성을 보면 노동자 154명, 농민 111명, 정당, 단체활동가 195명, 기업가 9명, 상업가 39명, 인민정권기관활동가 86명, 목사, 장로, 승려 14명, 문예인 28명, 학생 22명, 도시빈민 37명이었다.

남조선땅에 테로와 폭압이 살판치는 것처럼 엄혹한 조건에서 남조선의 정당, 사회단체 지어 우익정당, 사회단체대표들까지 위대한 수령님의 부르심따라 삼엄한 경계망을 넘어 남북련석회의에 참가한것은 수령님에 대한 남녘인민들의 경모의 정이 얼마나 뜨거웠는가 하는것을 잘 보여주고있다.

미국작가까지도 《... 남조선에 있는 우수한 인물들이 거의 한사람도 빠짐없이 참가하였다.》고 한 남북련석회의는 정녕 민족의 태양이신 **김일성**동지의 절대적인 권위에 의하여 열린 대민족회의였다.

전체 회의참가자들은 우뢰와 같은 박수환호로 회의장을 진감시켰으며 자나깨나 우리러 흠모하여 마지 않던 위대한 수령님을 처음 뵈옵는 남조선대표들은 끝없는 감격으로 하여 뜨거운 눈물을 흘리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4월남북련석회의에서 자주통일의 진로를 밝힌 정치보고를 하시었다.

련석회의에 참가한 모든 대표들은 위대한 수령님의 역사적인 보고를 민족구원의 등대로 지지찬동하였으며 격문 《전조선동포에게 격함》을 만장일치로 채택하였다.

이렇듯 4월남북련석회의는 북과 남의 온 겨레가 민족의 태양이신 위대한 수령님을 한자리에 모시고 조국통일이라는 민족의 중대사를 토의한 뜻깊은 회합이었으며 전체 조선민족의 한결같은 지향과 념원을 담아 수령님을 조국통일의 구성으로 높이 모신 조국통일운동사에 특기할 역사적사변이었다.

4월남북련석회의는 또한 주체적인 민족대단결사상의 빛나는 결실로 통일애국력량이 이룩한 역사적인 첫 승리를 과시한 민족적회합이었다.

온 민족이 따르는 위대한 사상과 로선이 있고서야 민족의 대단결도 있다.

4월남북련석회의는 우리 나라 역사에서 처음으로 공산주의를 적대시하던 완고한 극우익 민족주의세력까지도 련공, 련북으로 돌려세워 공산주의자들과 민족주의자들의 련합을 실현한 회합이었다.

사실 4월남북련석회의는 결코 순탄하게 소집된것이 아니었다.

남북련석회의문제가 정치적문제의 초점으로 되게 되자 조선민족내부에 반공을 통한 민족적대립과 반목을 조성하려고 획책하여온 분렬주의자들은 련석회의를 파탄시키려고 악랄하게 책동하였다.

제2차 세계대전후 사회주의가 세계적판도로 확대되고있는 가운데 북조선의 공산주의자들의 영향밑에 남조선에서 애국적민주력량이 장성하고있는 조건에서 이 두 세력이 련합하여 하나의 자주독립국가수립으로 나가게 된다면 그것은 곧 큰 타격으로 되지 않을수 없었다.

이로부터 분렬주의자들은 《단선》을 반대하는 애국적민주력량에 대한 탄압을 강화하는 한편 남조선의 애국적인 정당, 사회단체지도자들과 인사들이 북행길에 오르지 못하도록 방해책동을 다하였다.

박헌영도당은 우리 당의 통일전선방침을 외곡집행하면서 손을 잡아야 할 중간정당까지도 무원칙하게 배척하고 저들과 내통하는 극소수 사람들만을 련석회의에 참가시키려고 획책하였다. 박헌영도당의 이러한 작간으로 하여 본래부터 공산주의자들에 대한 불신을 가지고있던 일부 민족주의자들가운데서는 련석회의참가를 주저하는 현상이 나타나게 되었다.

당시 우리 일군들속에서도 각양각색의 정치신념과 주의주장을 내놓으며 하나의 당과나 단체안에서도 의사가 소통되지 않아 모여앉기만 하면 싸움판을 벌리는 그런 사람들과 자리를 같이하고 국사를 의논할수 있겠는가고 우려하는 사람들이 없지 않았다.

남조선의 민족주의정객들가운데는 반공을 필생의 리념으로 삼고 공산주의자들에게 테로를 가한 사람도 있었고 미군정청에서 《고문》으로, 《립법의원》의장, 의원으로 일하면서 외세에 아부하는 사람도 있었다.

하지만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그들의 가슴속에 간직되어있는 민족적량심을 귀중히 여기시였으며 어지러운 당파싸움의 회오리속에서도 가끔 울려오는 그들의 우국의 탄성을 들으시였고 반공의 비뚤어진 리념속에 한가닥이나마 남아있는 애국의 녂을 가려보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련석회의가 소집되어 그들과 접촉하게 되면 지난날 행세식맑스주의자들의 편협한 행동으로 하여 비뚤게 서있던 공산주의에 대한 견해에서도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나고 련공의 길로 나설수 있으리라고 확신하시였다.

북과 남이 상반되는 길로 나가고있는 엄중한 시기에 사상과 리념, 제도와 신앙이 서로 다를뿐아니라 공산주의자들을 적대시하여온 각이한 계층의 사람들이 한자리에 모여앉아 나라와 민족의 운명을 론의한다는것은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였다.

이것은 애국애족의 숭고한 리념을 지니시고 간고한 항일혁명의 불길속에서 민족주의자들과의 것처럼 어려웠던 반일민족통일전선을 형성해오신 위대한 수령님께서만이 취할수 있는 대담한 조치였다.

4월남북련석회의가 공산주의자들과 민족주의자들의 통일전선을 실현하여 분렬세력에 비한 통일애국력량의 압도적우세를 확고히 보장하고 민족대단결의 위력을 과시할수 있는 것은 주체의 민족대단결사상이 위대하였기때문이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일찌기 나라와 민족을 위한 혁명의 길에 나서시여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을 창시하시고 그에 기초하여 주체의 민족대단결사상을 내놓으시였다.

주체의 민족대단결사상은 민족의 자주성을 옹호하고 실현하기 위하여 사상과 리념, 정견과 신앙의 차이, 재산의 유무와 사회적지위에 관계없이 모든 계급, 계층이 민족공동의 요구와 리익을 첫자리에 놓고 하나로 굳게 단합할데 대한 가장 숭고한 애국애족의 사상이고 가장 폭넓은 민족단합의 사상이다.

민족의 대단결실현에서 공산주의와 민족주의가 량립될수 없는것으로 보는것은 잘못된 견해이다. 공산주의는 로동계급의 리익과 함께 민족의 리익을 옹호하는 사상이며 참다운 애국애족의 사상이다. 민족주의 역시 나라와 민족의 리익을 옹호하는 애국애족의 사상이다. 애국애족은 공산주의와 민족주의의 공통적인 사상감정이며 여기에 공산주의와 민족

주의가 연합할수 있는 단결의 기초가 있다.

애국심은 공산주의자들과 민족주의자들이 민족을 위한 하나의 궤도에서 서로 화합하고 단결하고 협력할수 있게 하는 최대공약수이며 애국애족은 공산주의를 참다운 민족주의와 연결시켜주는 대동맥으로, 참다운 민족주의를 련공의 길로 이끌어주는 원동력으로 된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그 누구도 따를수 없는 이러한 애국애족의 리념을 지니시고 남북련석회의소집제안을 내놓으시자 민족단합을 지향하는 북과 남의 모든 정당, 사회단체들과 애국인사들은 한결같이 지지하고 적극적으로 찬동하였던것이다.

북조선민전산하 정당, 사회단체들은 물론 남조선민전산하 정당, 사회단체들도 남북련석회의소집제안을 적극 지지하는 공동성명을 발표하였다.

그리고 중간 및 우익의 정당, 단체대표 200여명이 통일독립운동자협의회를 결성하고 남북련석회의를 추진할데 대한 투쟁결의문을 채택하였으며 문화인 108명이 련이어 남북련석회의소집제안을 적극 지지하는 공동성명을 발표하였다. 그밖에 많은 인사들이 앞을 다투어 《3천만의 축원》, 《감격에 벅차 울음이 난다》, 《한사코 성사시키자》 등의 제목으로 련석회의소집을 지지하는 담화들을 여러 출판물들에 발표하였다.

남조선의 민심은 련석회의가 열릴 평양으로 쏠리었고 대표들은 북행길을 서둘러 련공애국의 길에 올랐다. 그들은 분계선에서 위대한 수령님께서 파견하신 일군들의 친절한 안내를 받으며 평양에 무사히 도착하였다.

이렇게 되어 온 겨레의 커다란 기대와 관심속에 열린 4월남북련석회의는 극우익을 비롯한 모든 계열의 민족주의자들을 조국통일의 기치밑에 련공합작으로 이끌어 공산주의자들과 민족주의자들의 통일전선을 이루고 련합과 공동행동의 실천적단계를 열어놓은 역사적인 민족대회합으로 되었다.

공산주의자들과 민족주의자들사이의 현실적인 단합을 실현하고 공동행동으로 거족적인 투쟁을 벌리는데서 남북련석회의에 이어 진행된 쑥섬협의회는 커다란 의의를 가지었다.

4월남북련석회의는 거족적인 투쟁으로 《단선단정》음모를 분쇄하고 나라의 분열을 막을데 대한 대책을 세웠지만 분열주의자들이 기어코 피뢰정부를 조작하는 경우에는 어떤 대책으로 그에 대응해나설것인가 하는 구체적인 공동행동상의 실천적대책까지는 토의하지 못하였다. 대표들은 이에 대한 해답을 기다리고있었다.

그러므로 《단선단정》음모를 파탄시킨 후 통일정부수립문제까지 확정해놓아야 련석회의성과를 공고히 할수 있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북남고위급인사들로 쑥섬협의회를 마련하시고 조국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를 막론하고 모두가 일떠서 나라를 영원히 둘로 갈라놓으려는 망국적단독선거놀음을 단호히 거부할뿐아니라 완전히 파탄시켜야 한다고 하시며 끝끝내 단독《정부》를 조작하는 경우에는 전조선적인 민주선거를 실시하여 통일적인 중앙정부로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창건할데 대한 구상을 밝히시였다. 계속하여 외세의존정책과 사대주의사상을 반대배격하고 조선사람의 힘으로 통일을 실현하여야 한다고 강조하시였다.

남조선의 우익정객들은 한때 편견에 사로잡혀있던 마음속옹이를 풀고 련공합작의 의지를 더욱 굳게 가다듬으며 위대한 수령님께서 밝혀주신 투쟁과업을 기어이 관철해나갈

열망으로 가슴불태웠다.

참으로 쑥섬협의회는 전조선적인 통일적중앙정부로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창건할데 대하여 합의를 본 사실상의 전조선정치협상회의로 되었으며 이것으로 하여 우리 민족의 통일전선과 통일정부창건력사에 영원히 빛날 뜻깊은 장을 장식하게 되었다.

4월남북련석회의는 민족의 어버이이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절세의 위인상을 겨레의 심장속에 깊이 새겨주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나라의 통일을 바라는 정당, 사회단체대표들과 개별적인사들이 련석회의에 다 참가할수 있도록 조치들을 취해주시고 초대장준비사업에까지 깊은 관심을 돌리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누구든지 초대장을 받으면 우리의 성의있는 노력에 감동되어 우리를 찾아오고싶은 충동을 받도록 하여야 한다고 하시면서 글자배렬과 간격, 글자획에 이르기까지 하나하나 바로잡아주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특히 우익민족주의세력과의 합작에 특별한 관심을 돌리시고 전 민족적회의소집제안을 담은 편지를 김구, 김규식에게 전달하도록 하시였다.

그런데 당시 김구는 민족분렬의 위기가 눈앞에 닥친 실정에서 애국애족이라는 공통성에 기초하여 서로 손잡아야 할 사명감을 절감하면서도 과거에 공산주의자들을 줄곧 혐오해온것만큼 그들도 자기를 배척할것이라는 위구심때문에 좀처럼 최종결심을 내리기 어려워하였다. 이때 김구의 심정은 공산주의자들이 자기의 과거를 백지화하지 않는 조건에서는 북행길에 선뜻 나설수 없다는것이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김구가 보낸 비밀련락원을 만나주시고 지난날의 일은 다 백지화한다고 하시면서 과거불문의 원칙은 항일혁명투쟁시기부터 확립된 전통이라는것을 명백히 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반대파들의 방해소동을 고려하여 회의를 4~5일간 미루어주실것을 제기한 김구, 김규식의 의견도 쾌히 수락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지니신 누구도 따를수 없는 숭고한 조국애와 민족애, 온 겨레를 한품에 안으시는 넓은 도량과 포용력, 다심하신 인정미와 고결한 인품앞에서 것처럼 완고했던 남조선의 민족주의자들까지 머리숙여 감복하지 않을수 없었다.

김구는 한시도 몸에서 떼지 않고 소중히 간직하고다니던 상해립시정부의 인장을 꺼내놓으면서 조선을 이끄실분은 장군님뿐이십니다, 모든것을 장군님께 맡깁니다라고 절절하게 말씀올리였다.

이것은 한생을 반공으로 살아온 그가 이제 민족의 운명과 자신의 녀을 모두 위대한 수령님께 의탁하겠다는 심정의 토로였고 인생말년에 반공민족주의로부터 련공애국으로 궤도수정을 하는 서약이라고 할수 있었다.

김규식도 위대한 수령님의 숭고한 민족자주리념과 넓은 아량, 누구도 따를수 없는 고결한 인품에 탄복하며 련공애국의 길에 나섰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앓는 몸으로 사선을 헤치고 평양에 온 김규식에게 의사와 간호원을 불러 극진히 치료받게 하시고 몸소 병문안까지 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남북련석회의에 앞서 예비회의를 소집하시였을 때 전체 인민의 한결같은 요청을 굳이 사양하시고 대표들가운데서 김월송로인이 장기간 일제를 반대하여

투쟁한 애국투사로서 명망이 높고 나이가 제일 많다고 하시며 그가 회의의 개최를 선언 하도록 내세워주시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련석회의가 끝난 후에는 대동강의 쑥섬에서 남조선에서 온 대표들이 긴장한 회의와 행사일정으로 하여 쌓인 피로를 풀도록 하시고 식성까지 헤아려주시었다. 그들은 위대한 수령님의 고결한 인품과 너그러운 포용력, 소탈한 풍모에 매혹되어 수령님께서 가리키시는 련공애국의 한길에 몸바쳐나설 결심을 더욱 굳게 다지였다.

남북련석회의를 마치고 서울에 나간 김구와 김규식은 《평양방문에 관한 공동성명》에서 《남북 정당, 사회단체련석회의는 조국의 위기를 극복하며 민족의 생존을 위하여는 우리 민족도 세계의 어느 우수한 민족과 같이 주의와 당파를 초월하여서 단결할수 있다는 것을 또 한번 행동으로 증명한것이다.》라고 언명하였다. 그리고 80여개 정당, 단체들을 망라하여 《통일독립추진회》를 결성하고 《5.10단선》을 반대하며 통일정부수립을 위한 투쟁을 벌리였다. 이 과정에 김구는 련공합작, 자주통일의 뜻을 굽히지 않았으며 마지막까지 의리를 지켰다.

오늘 대동강 한가운데 떠있는 쑥섬의 통일전선탑은 주체적인 민족대단결사상의 빛나는 결실로 통일애국력량이 이룩한 승리를 그대로 보여주는 역사의 증언자로 되고있다.

4월남북련석회의는 우리 민족의 위대한 단결을 과시한 애국적회합으로 력사에 영원히 빛날것이며 북과 남, 해외의 모든 조선사람들에게 민족적단결과 조국통일에 대한 새로운 지향과 열의, 신심과 용기를 북돋아주고있다.

북과 남, 해외의 전체 조선민족은 민족대단결의 기치를 더욱 높이 추켜들고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의 애국애족의 뜻과 의지로 자주통일의 대통로를 열어나감으로써 통일된 강국을 반드시 일떠세워야 할것이다.

실마리어 련석회의, 민족대단결